

1984년 썰로 살펴본 초판 및 수정판과 천공의 다양성

이번 호의 주제는 2011년 신묘년(辛卯年) 토끼의 해를 맞아 토끼 도안이 있는 1984년 썰로 선정하였다. 1984년도 썰(한국의 전래동화 시리즈)은 전래동화 5가지를 각 1행씩 구성하고 각 행은 전래동화별로 5칸으로 표현하여 5행×5칸의 총 25종(5×5)의 썰로 구성되어 있다. 여류화가이며 공예작가인 광계정의 작품으로 1984년 썰은 다른 연도의 썰과 달리 변지의 천공(穿孔; Perforation)이 매우 다양하며 판형은 초판과 수정판이 존재하고 있다.

썰 도안자 광계정은 누구인가?

광계정(郭桂晶; 1940년 생)은 대구 출신으로 1963년 홍익대학 미술학부 회화과 및 홍익대학원 공예과를 졸업하고, 이후 1970년도 초부터 개인전과 초대전시회에 수많은 작품을 출품한 바 있는 여류예술가이다. 광계정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초대전에서도 활발한 전시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회화 및 판화 이외 목공예, 왕골, 염색, 종이공예 등 공예 작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광계정 공예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썰의 도안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썰 디자이너의 예술과 작품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인 미술평론가 이경성(李慶成; 1919~2009)의 광계정에 대한 평론을 보면 “독특한 콜라주(Collage; 구성하려는 화면에 종이 이외에 이질적인 재료나 잡지의 삽화, 기사 등을 오려붙이는 작업)와 핸드페인팅이라는 기법에 의해서 작품을 평면화하고 획일화하였기 때문에 독특한 입체감을 자아내며 광계정의 작품은 설화적(說話的), 우화적(寓話的), 민속적인 주제가 강하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옛날의 민화에서 보아온 일상적인 생활의 주제와 서민적인 이야기가 세련된 기술과 더불어 애정이 깃들여 있으며 광계정의 그림을 볼 때마다 한국의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광계정의 그림이 한층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은 대담한 구성과 강렬한 색채의 대비 때문이다”라고 평하였다. [그림 1]은 1989년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의 벽화로 제작된 광계정의 작품 2점 중 한 점(고향생각 A; 300×200cm)으로 우리의 전통적 농촌 풍경을 배경으로 한 민속 소재를 담고 있다.

1984년 썰의 도안

1984년 썰 도안은 5가지 전래동화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5가지 동화는 ①흥부와 놀부 [그림 2] ②금도끼와 은도끼[그림 3] ③해와 달[그림 4] ④토끼와 거북이[그림 5] ⑤심청



그림 1 광계정의 작품[고향생각A, 벽화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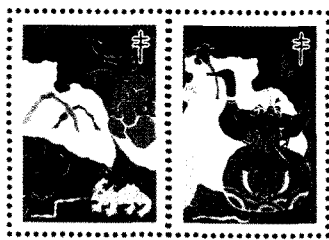


그림 2 흥부와 놀부(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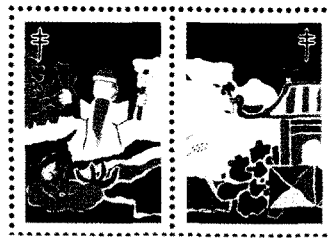


그림 3 금도끼와 은도끼(일부)



그림 4 해와 달(일부)



그림 5 토끼와 거북이(일부)

전[그림 6]이다.

1984년 쉼의 특징은 전래동화별로 배경색을 달리 사용하고 있으며 '흥부와 놀부'는 황토색, '금도끼와 은도끼'는 초록색, '해와 달'은 회색, '토끼와 거북이'는 적색, '심청전'은 군청색을 배경색으로 하고 있다.

쉼의 도안을 보면 색채는 매우 강렬한 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옛날이야기를 보는 듯한 우화적인 분위기의 도안으로, 이는 위의 평론 내용과 같이 디자이너의 예술세계를 알아야 쉼 도안을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광계정은 주제와 관계없이 작품에 개구리와 오리나 토끼를 매우 즐겨 그린 화가로서 이 역시 작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984년 쉼의 경우를 보아도 주제와 전혀 무관하게 [그림 2]와 [그림 3] 및 [그림 6]에는 개구리와 오리가 있으며, [그림 4] 및 [그림 5]에는 개구리와 토끼가 등장하고 있다. 다만, [그림 5]의 경우 토끼는 관련 주제이므로 거북이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 광계정은 1989년의 쉼(정겨운 우리풍속)도 디자인하였으며 1989년 쉼의 경우에도 [그림 7]과 같이 쉼 도안의 주제와 무관하게 토끼와 개구리가 등장하고 있다. <보건세계>지의 "크리스마스 쉼 야화 24화"에서 이창성(李昌性)은 1989년 쉼에 개구리와 토끼가 여러 차례 등장한 것에 대해 큰 고심을 하고 무슨 꼭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도안자에게 직접 문의하였다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1984년의 쉼은 25매(5×5) 전지 이외 50매(10×5) 전지도 발행하였으며, 50매 전지의 경우는 25매 전지를 좌우로 배치한 것으로, 각 행마다 전래동화가 반복해 등장한다.

1984년 쉼의 초판과 수정판

1984년 쉼의 경우는 심청전의 4번째 칸(쉼 위치 # 24번)에 인쇄한 글자(결핵협회/ KOREA 1984)를 당초 검은색으로 인쇄하였다. 그러나 14번째와 24번째 쉼의 경우는 배경색으로 인하여 글자가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림 8] 및 [그림 9]와 같이 도안을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쉼을 발행하였다.

우표나 쉼의 경우 도안을 시험인쇄(Essay라 함)한 후 색상이나 글자를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안을 다시 시험인쇄

(Proof라 함)하여 검토 후 발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국 초판은 일종의 Essay로서 상문사(尙文社) 인쇄소에서 시험 인쇄한 5매 내외의 전지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이창성). 필자도 초판전지 1매를 오래 전에 입수하여 가지고 있으나 초판 전지의 입수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초판 전지의 경우는 2010년 10월 결핵협회에서 발행한 한국의 크리스마스 쉼 도감 75쪽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구분 | [초판] | [수정판] |
|---------|---------------|--------------|
| [그림 8] | ①글자위치가중앙 | ①글자위치가우측 |
| →14번째 쉼 | ②복심자마크가우측 | ②복심자마크가좌측 |
| [그림 9] | ①글자색이검정색이며 좌측 | ①글자색이흰색이며 우측 |
| →24번째 쉼 | ②제목(=심청전이)우측 | ②제목(=심청전이)좌측 |

1984년 쉼 전지 - 천공의 다양성

1984년 쉼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전지의 천공 상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인데, 현존하는 쉼 전지 중에서 변지(邊紙: 쉼 전지에 서 인면 밖의 테두리)의 천공이 가장 다양한 쉼이라 할 수 있다. 전지에 구멍을 타공하는 방식은 단선천공과 빗형천공이 있으며 단선천공은 일직선 모양의 천공침을 사용하여 가로줄과 세로줄을 각각 1단씩 타공하는 방식이며, 이에 비해 빗형천공은 빗살모양의 천공침을 사용하여 전지를 한쪽 방향으로만 1단씩 타공하는 방식이다. 천공이 변지 끝까지 타공될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상발형(上拔形), 하발형, 좌발형, 우발형이라고 부른다.(음영부분이 인면이고 흰 부분은 변지임)

예를 들어 상우발(上右拔)형이라고 하면 이는 변지에서 위쪽과 오른쪽은 변지 끝까지 천공이 뚫려 있는 것을 말하며, 아래쪽과 왼쪽 변지는 변지 끝까지 구멍이 뚫려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984년 쉼의 경우 25매 전지에 대해 필자가 수집한 것을 기초로 분류하면 초판은 '상하발 및 우발형'이며 수정판은 ①하발 및 좌우발형 ②상발 및 좌우발형 ③하우발형 ④상우발형으로 전지의 천공분류는 모두 5가지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50매 쉼 전지의 경우는 상우발형과 하우발형의 2종류가 있으며 25매 전지(수정판)를 예로 들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6 심청전



그림 7 1989년 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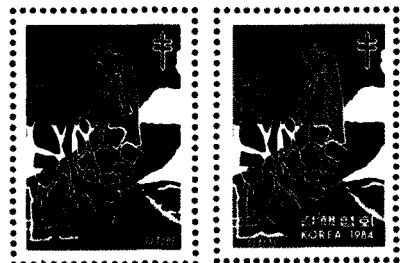
그림 8 쉼의 비교(14번째 칸)



▲ 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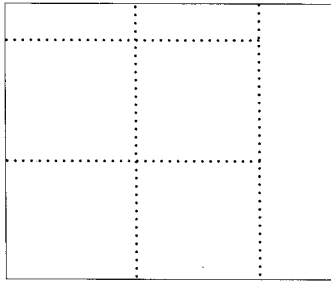
▲ 수정판

그림 9 쉼의 비교(24번째 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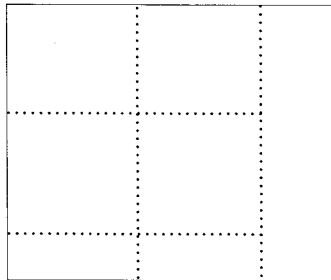


▲ 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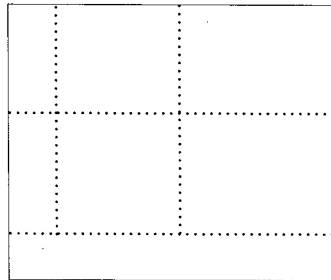
▲ 수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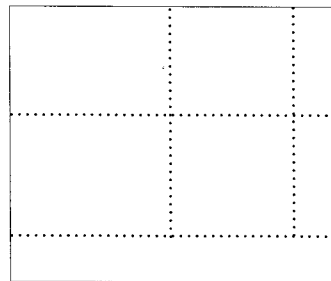
▲ 상발형



▲ 하발형



▲ 좌발형



▲ 우발형



이 글을 쓴 남상욱님은 쉼 수집가로 서초우취회 부회장 및 우리협회 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① **하발 및 좌우발형** 이 경우는 하발이므로 하변지는 변지 끝까지 천공이 되어 있으며, 좌우변지의 경우도 변지 끝까지 천공이 된 형태이다.



② **상발 및 좌우발형** 이 경우는 상발이므로 상변지 끝까지 천공이 뚫려 있으므로 하변지는 변지 끝까지 천공이 되어 있지 않으며, 좌우변지의 경우는 변지 끝까지 천공이 된 형태이다.



③ **하우발형** 이 경우는 하발과 우발이므로 하변지와 우변지에만 변지 끝까지 천공이 된 형태이다.



④ **상우발형** 이 경우는 상발과 우발이므로 상변지와 우변지에만 변지 끝까지 천공이 된 형태이므로 하변지는 천공이 변지 끝까지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할 경우는 단순히 전지 1매만을 입수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변지의 천공에 따른 종류별로 전지를 입수하여야 한다.